

7/19/20

설교 제목: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구원 받은 롯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9 장 1-29 절

- (창 19: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창 19: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 (창 19: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 (창 19: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 (창 19: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 (창 19: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 (창 19: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 (창 19: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 (창 19: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 (창 19: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 (창 19: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이 소돔을 떠나다

- (창 19: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절판주** 수 6:22, 창 7:1, 벙후 2:9
- (창 19: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 (창 19: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 (창 19: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 (창 19: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던라
- (창 19: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 (창 19: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 (창 19: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 (창 19: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 (창 19: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 (창 19: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

- (창 19: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 (창 19: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 (창 19: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 (창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 (창 19: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절관주 창 18:22
- (창 19: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 (창 19: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현현했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소돔의 적나라한 타락과 죄악을 목격한 두 천사는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와중에 벌어진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세심하고 깊은 배려에 가슴이 찡합니다.

공의로만 하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소돔에 의인을 찾아봐서 의인 열 명이 없으면 모두 싹쓸어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의 수를 오십 명에서 열 명까지로나 낮추어 준 것도 큰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대로 실행을 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직전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살리고자 애써 증보했던 롯을 구원해 주시기로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들로 하여금 롯을 찾아가 가족과 그가 소유한 자들을 데리고 소돔을 떠날 것을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롯의 사위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치는 도중 뒤돌아 보지 말라는 두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아 그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 롯과 두 딸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서야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고 마침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창 19: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그네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롯의 모습 속에서 롯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롯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애초부터 주거지로 최악이 만연한 소돔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단 위에 펼쳐진 푸른 초원을 바라보고 소돔을 택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선 순위는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소돔의 최악에 물들어 갔습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묵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창 19: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창 19: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두 천사는 처음에는 롯의 권유를 거절했으나 롯이 재차 간청하자 응하였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 나그네들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롯의 집에 모여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창 19: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창 19: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데 나그네를 끌어내라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나그네와 상관하겠다 즉 성 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지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까지도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가 성행위의 대상이었습니다.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져 있는 그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롯은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창 19: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창 19: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창 19: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나그네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로서 두 딸을 소돔인들에게 내어주려고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롯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보려하나 소돔인들은 롯에게 이곳에 들어와 거류하는 주제에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려고 하는나며 성을 내고 오히려 롯을 해하겠다고 덤볐습니다.

(창 19: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상황을 지켜보던 두 천사는 위기에 처한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의 악한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창 19: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창 19: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한밤에 갑자기 눈이 어두어진 무리들은 허둥대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상을 두 눈으로 확인한 천사들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창 19: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창 19: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에 죄악이 관영함을 목격하고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롯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롯은 다급하게 사위들을 찾아가 천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창 19: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될 사람들도 소돔 사람들이었던지라 죄로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 성의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고 천사들은 급하게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창 19: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 19: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던라

두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은 머뭇거리며 시간을 지체합니다.

재산에 대한 미련으로 냉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도 롯과 같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두 천사는 주저하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창 19: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이 와중에 롯이 산까지 도착하기 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며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창 19: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창 19: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창 19: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가겠다고 한 작은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 3 킬로 정도 떨어진 소알입니다.

'소알'이라는 이름은 성이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으로 피하지 않고 성읍으로 피하겠다는 롯을 보며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였을
때 소돔 성을 선택했던 롯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도시를 선택했던 롯이 지금 또 다시 도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 19: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 19: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는 롯에게 롯이 피신처로 택한 작은 성읍으로 가라고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롯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

롯의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심판의 날 아침도 어김없이 해가 돋았습니다.

(창 19: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렇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롯이 작은 성읍에 들어가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베라, 아드마, 스보임까지 임했습니다.

죄악이 소돔 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도 만연되었던 것입니다.

(창 19: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 19: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창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브라함의 종보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온 롯과 두 딸 뿐이었습니다.

요단 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풍요를 누리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그곳은 사해가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에 의해 마지못해 끌려 나왔지만 마음은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 안에 남겨두고 나온 재산에 대한 미련으로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한 말을 무시한 채 뒤를 돌아보다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들었던 터인지라 소돔의 상황이 궁금해 아침 일찍 소돔으로 가는 두 천사를 배웅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창 19: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창 19: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거기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굽어 보노라니 그곳에서는 이미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 19: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옆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성 밖으로 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와 악이 무성하여 죄가 관영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도 똑 같습니다.

동성애 소아성애가 횡행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압제당하는 북한 동포와 중국 인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양 떠들어 댁니다.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그 문제를 지적하는 바른 교회와 바른 목사들을 핍박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죄가 관영한 이 세상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늘과 땅이 다 녹아 내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의 증자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자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롯처럼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증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